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작한다

경상남도, 11월부터 창원한마음병원 보건복지부 기준 갖추고 운영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외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된 창원한마음병원은 센터 운영을 위해 응급진료센터 내 일반 환자과 이 용 공간을 분리한 관찰병상 2병상을 신규 설치했으며, 응급의

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의 협진 체계를 구성하고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췄다.

경남 권역 내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센터는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

응 병상을 운영하게 된다. 초기 평가 후 필요시 최대 3일까지 관찰병상 체류를 통해 추가적 내·외과 진료·처치를 시행한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치료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상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11월 1일부터 소아·야간·휴일 진료 시작지대 해소를 위해 김해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신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동부권에 김해아동병원이 지정·운영중이며, 이번 김해시 서부권에 평일 오후 6~11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래진료를 하는 진영새책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김해 서부 및 인근 지역의 소아 환자 진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룡 기자

‘물류개척단’ 중·러 물류거점 지역 파견

물류 협력 기반을 다지고 북극항로 시대 여는 유라시아 수출길 개척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요 물류거점 지역에 '2025 부산시 물류개척단'을 파견해 중·러 지역 물류 협력 기반을 다지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유라시아 수출길 개척에 나섰다.

물류개척단은 ▲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역 물류기업 등이 참여해 현지 주요 기관과 물류 거점을 직접 둘러보며 현지 물류 기반 시설과 운송 체계를 점검하고 부산발 북극항로를 활용한 수출경

로 다변화와 유라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개척단은 중국 훈춘시 관아비 부시장과 외사관공실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도시 간 국제 우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훈춘 종합 보세구와 전자상거래산업단지 ▲러시아 자루비노항, 현지 물류기업 안리푸드(Annyfood)와 로즈카플류스(Lozhka plyus) 제조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협력 가능성과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23일에는 부산 지역 물류기업인 레오나해운항공㈜과 러시아

대표 물류기업 트리아다 디브이(DV)가 부산-러시아 간 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24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물류 활성화 포럼'을 열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무원 및 양국 물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시-블라디보스토크시 공식 회의'에서는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비롯해 ▲문화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개척단 파견을 통해 극동 및 유라시아 신흥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수출길을 열고 부산-훈춘-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물류 벨트 구축 기반을 마련했으며, '부산-극동-유럽 복합 물류 루트'의 실질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보철 실장은 "부산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우유 기자

대구첨복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도약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도약 위한 첨복단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대구광역시시는 보건복지부가 10월 22일 확정·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종합계획(2025~2029)'에 'BIT융합허브 조성' 등 대구시 핵심 추진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첨복단지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9년 지정·고시된 첨복단지(대구 신서, 총복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5차 종합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10.17.)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을 비전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연계와 협력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기반 안정화 등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구첨복단지

발전을 위해 △BIT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조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KOADMEX 개최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왔다.

이번 종합계획 반영으로 대구첨복단지를 산·학·연·병이 집적된 자생적 선순환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고,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시는 2026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벽히 의료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최윤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대구첨복단지가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울산시, 한-미 관세협상 합의 환영 성명서 발표했다

자동차 분야 관세 15% 인하…조선업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협상이 지역 수출기업과 울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 시장의 높은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의 자동차와 부품 산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미 수출에서

높은 관세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와 부품 산업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완성차와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업 분야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했다.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프로

젝트(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울산 조선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울산시는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 왔다.

향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세 인하 효과가 울산의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상으로 그간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세 합의로 인한 성장의 열매가 울산 시민 모두와 지역 내 중소 중견 기업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급변하는 세계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기자

칠곡, 세계 전기차 1위 中선전시 교류·협력 나서기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한·중 기업, 상생의 길 모색해



칠곡군 무역사절단이 중국 선전시자동차전자산업협회를 방문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양 지역 기업 간 교류와 협

력에 나서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이상승 군의회 의장, 오종열 군의원, 지역 자동차 관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전시에서는 상무국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 등 13명이 함께해 1시간 30분 동안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와 주요 기업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선전시는 BYD, 샤오미, 니오 등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자 산업 도시로, 칠곡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변화와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직접 확인했다.

칠곡군 무역사절단은 협회의 발표 이후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경쟁력을 소개했다.

현지 기업인들과 바이어들은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

다. 김병수 ㈜제이엔에스 대표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지 실감했다"며 "양국 기업이 기술 협력을 강화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내연기관 시대부터 쌓아온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울산-현대자동차(주) 투자양해각서 결실

울산시는 30일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서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기현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박천동 부구청장 그리고 장재훈 현대자동차(주) 부회장과 이동석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문용문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 및 수소 부품사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시관람 후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사업보고(브리핑), 단주 누름(버튼터치 세레모니) 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 투자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현대자동차(주)의 수소연료전지 공장은 중국 광저우에 이어 세계 2번째이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공장에 들어서게 된다. 약 4만 3,000㎡ 부지에 연면적 9만 1,000㎡ 규모로 총 공사비 9,300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7년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 및 시험생산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공정은 화학 공정(스택 제조)과 조립 공정(시스템 제조)을 통합하는 원팩토리(One Factory) 형태로 추진되며, 연간 3만기 연료전지 생산 능력을 갖춘 예정이다.

이번 공장 착공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 울산시의 적극적 친기업 정책

과 부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그리고 현대자동차(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투자 결정 덕분에 당초보다 빠른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장재훈 부회장은 "울산이 수소 산업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및 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청정 수소에너지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현대자동차(주)와 협력을 통해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국내 최초 수소 트랙터 도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근 기자

거창 생축·분뇨차량 전용 소독시설 11월 3일 첫 운영

거창군은 오는 11월 3일부터 거창읍 거창대로 3390번지(거창군축산종합방역소 내)에 설치된 생축·분뇨차량 전용 소독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살아있는 가축 및 축산분뇨 운송 차량의 동선을 일관되게 축산차량과 분리해 '전용 터널형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기존 소독체계와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 교차오염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군비 1억 5천만 원 사업비가 들어간 '생축·분뇨 전용 시설'에는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소독 시스템과 대인소독시설 등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춰 체계적이고 정밀한 방역이 가능하다.

전용 시설 운영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축산농가와 지역 축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축산차량 소독은 가축 방역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전용 소독시설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의 불안을 덜고, 거창군의 방역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 위천면은 지난 30일 모전마을에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께 장수자랑이 청려장을 전달했다.

위천면장과 마을이장이 직접 어르신댁을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카드와 함께 청려장을

전달했다. 장수자랑이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100세 어르신들에 증정하고 있다.

신종호 면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건강하고 존경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